

아동권리 이슈포커스 -5호-

Children's Rights Issue Focus

발행인: 양진옥 발행처: 굿네이버스 발행월: 2016년 10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이슈포커스는 주목할 만한 아동의 현안에 대해 아동권리 관점의 이해를 제공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및 제도, 인식,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개선을 촉구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아동기 빈곤과 성장

Childhood poverty and development



Purpose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아동기 빈곤과 아동의 성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아동결핍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 현황을 확인하고, 빈곤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아동기 발달 격차를 신체적, 심리정서적, 인지적 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 가정 아동의 균형잡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Key message

많은 연구결과에서 빈곤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그렇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보다 신체건강 발달과 심리정서적 안정, 학습인지적인 발달에 있어서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동 스스로가 빈곤한 환경을 만들거나, 빈곤한 환경을 선택하여 태어난 것은 아니다. 아동이 책임지거나 선택할 수 없는 빈곤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하며, 빈곤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접근에 기반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 아동들은 누구나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아동기 빈곤 이해를 위해 상대적 빈곤, 아동결핍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주목하여야 한다.
- 빈곤아동지원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 아동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대간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 빈곤가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마련이 필요하다.
-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적응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탐색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Situation |

아동과 관련된 중요한 아동권리 이슈 중에 하나는 빈곤문제이다. 부모의 보호와 양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은 빈곤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취약한 위치에 있다(오정수·정익중, 2013). 따라서 아동기 빈곤은 아동의 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사회적 배제와 사회해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양도받은 부의 크기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구분된다는 의미를 갖는 금수저와 흙수저에 관한 계급론이 2015년에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였다(전병유·신진욱, 2016).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절대적 빈곤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심화시키며, 아동의 삶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빈곤지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빈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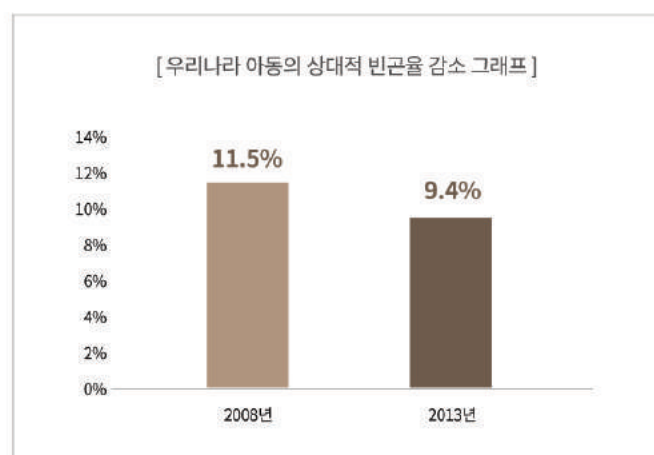
아동 빈곤은 빈곤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아동 빈곤의 지표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아동결핍지수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은 200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오고 있지만, 상대빈곤을 적용하고 있는 OECD 국가의 아동빈곤율과 아동결핍지수로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율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동빈곤이란 보통 18세 미만의 아동이 빈곤한 가족에 속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아동빈곤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연 외, 2015).

절대빈곤이란 생존을 위한 최저의 물질의 결핍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한 가족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액수로 표현된다 (Memindx & Smeeding, 2003. 김미숙외,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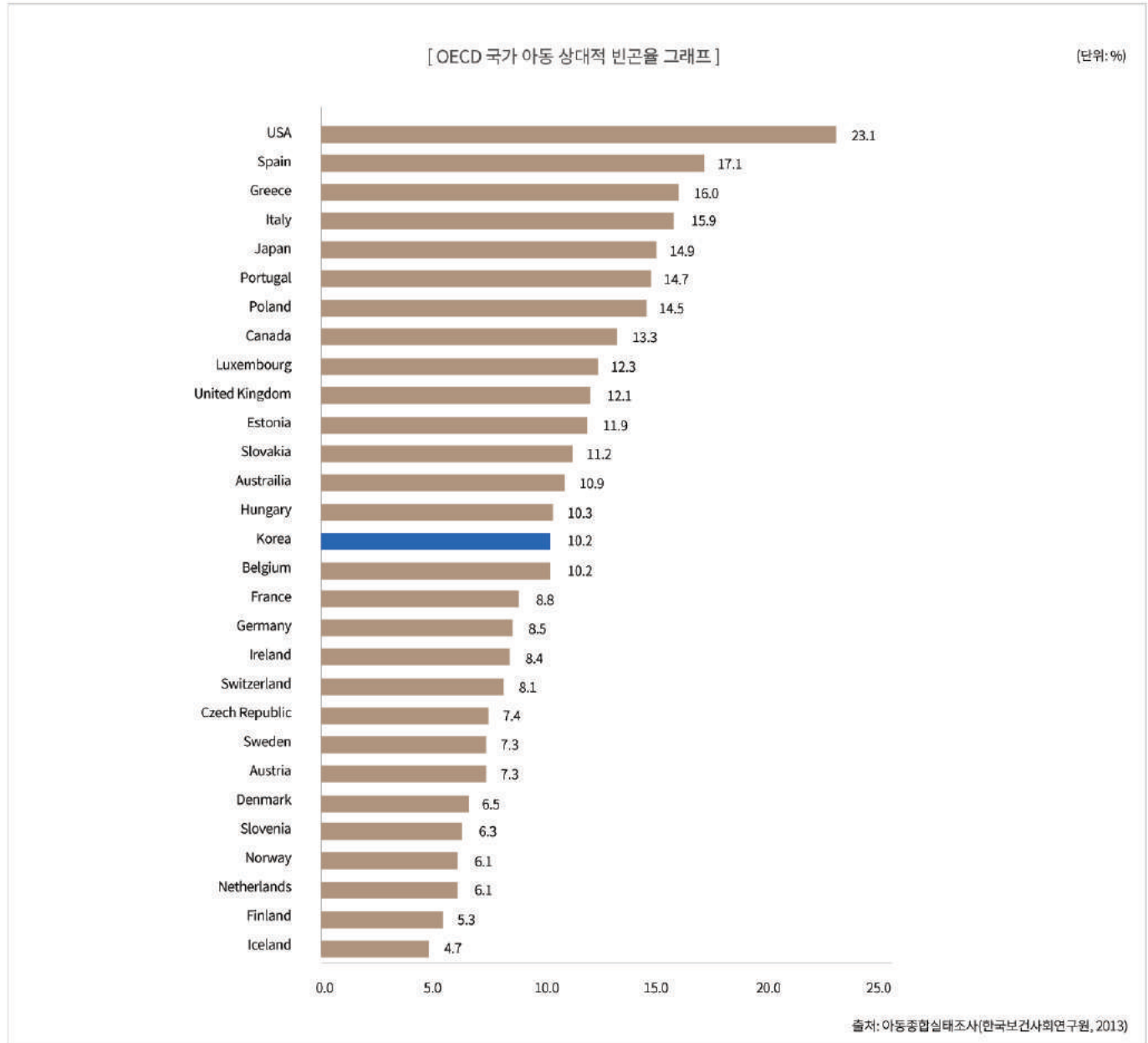
상대빈곤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의 삶의 수준과 비교하여 개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자원의 양을 측정한다는 데 있다(이재연 외, 2015).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29개 국가의 평균 아동 빈곤율 11%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 10.2%(가계동향조사, 2013)를 보이고 있다(UNICEF, 2013). 그러나 과거 10년 동안의 아동 빈곤율 감소폭이 매우 적고,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빈곤율이 11.7%임을 감안하면 2013년 9.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와 비교 시 아동 빈곤율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 문제가 거의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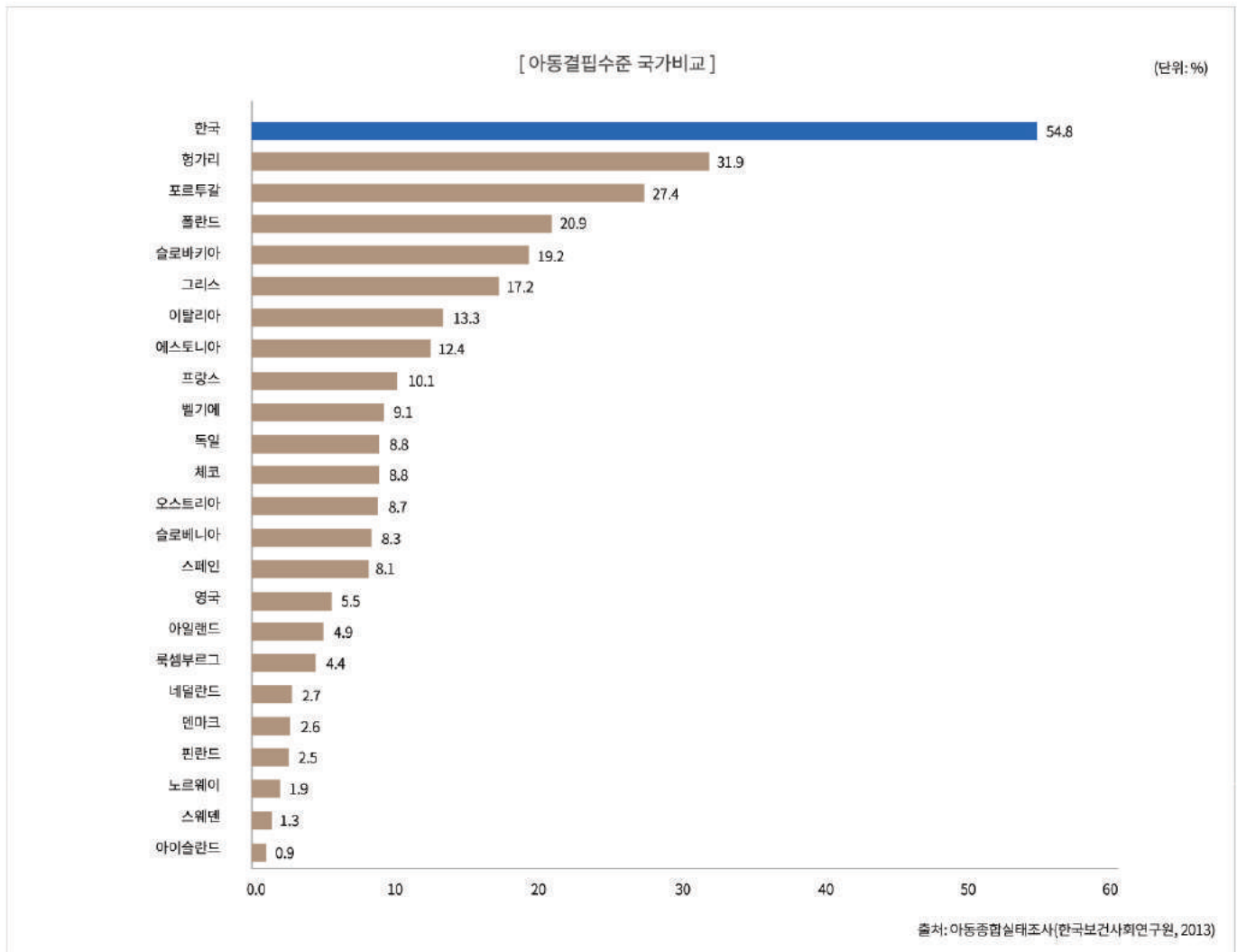
출처: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29개 국가의 평균 아동 빈곤율 11%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 10.2%(가계동향조사, 2013)를 보이고 있다(UNICEF, 2013). 그러나 과거 10년 동안의 아동 빈곤율 감소폭이 매우 적고, 아동 빈곤율이 가장 높았던 해의 빈곤율이 11.7%임을 감안하면 2013년 9.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와 비교 시 아동 빈곤율은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빈곤 문제가 거의 나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아동종합실태조사, 2013).



한편,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 빈곤율의 감소는 우리나라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궁핍감과 결핍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다. 단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¹⁾로 아동의 빈곤상태를 측정한 결과 식생활, 교육자료, 사회활동 전반에 걸친 한국아동들의 결핍의 정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김은주, 2015), 우리 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아동결핍률은 빈곤아동의 경우 85%로 나타나 전체아동의 결핍지수 53.5%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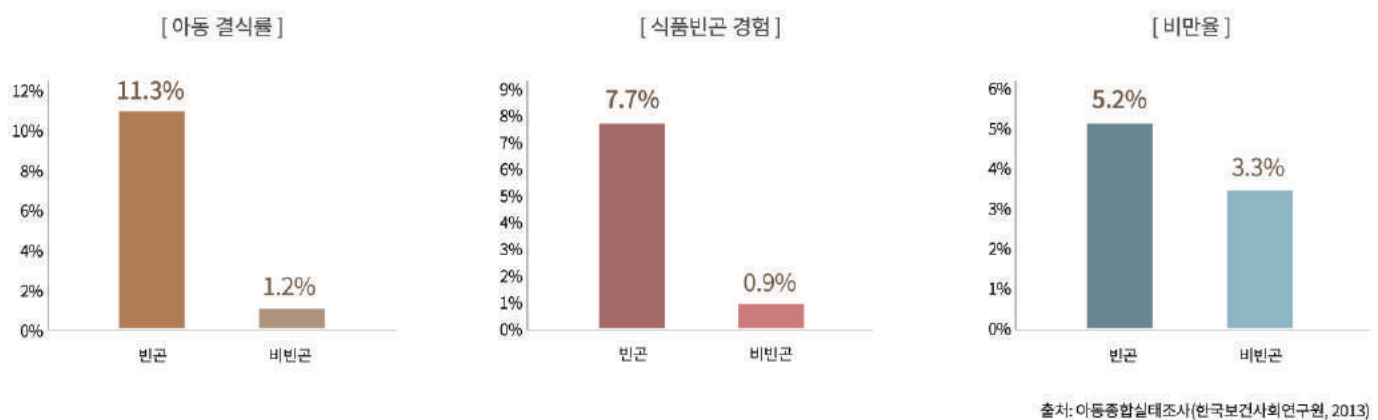
결국, 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로 설명되는 상대적 빈곤과, 아동결핍수준은 우리나라 아동의 삶 또한 양극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빈곤 아동의 현재 삶²⁾

빈곤아동의 삶의 현주소는 비(非)빈곤 가구 아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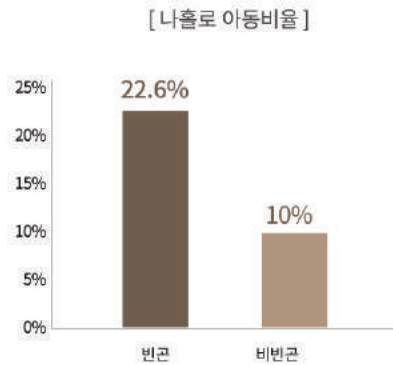
먼저, 아동의 생존 및 건강한 신체발달과 직결되는 결식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빈곤가구 아동의 결식률이 비빈곤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빈곤 경험도 높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영양불균형 및 섭식관리 미흡으로 인한 비만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1) 아동결핍수준은 성장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소유상태, 서비스 및 각종 기회 충족여부(14개 문항)를 측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문항은 하루 세끼 섭취여부, 한 끼 이상 육류, 생선 섭취, 매일 과일·채소 섭취, 교과서 이외 도서 보유,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 보유, 정기적인 여가활동(수영, 악기, 태권도 등), 장난감, 교육용 실내 활동 도구 보유,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가, 가정내 독서공간 여부, 가정에서 인터넷 활용 가능, 세숫보유, 2켤레이상 신발 보유, 친구 초대 기회, 생일 잔치, 가족행사 등 이벤트 참여 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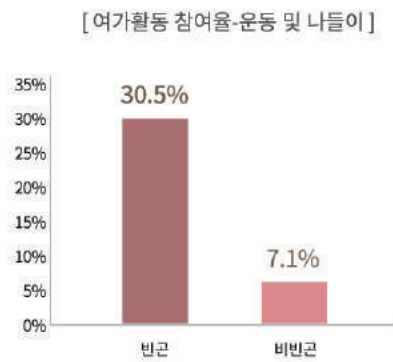
2) 본 절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되었다.

아동 보호권과 관련된 아동안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빈곤아동은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방과후에 보호자없이 혼자 지내는 나홀로 아동비율이 비빈곤가구 아동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빈곤 아동 가구의 생계형 맞벌이와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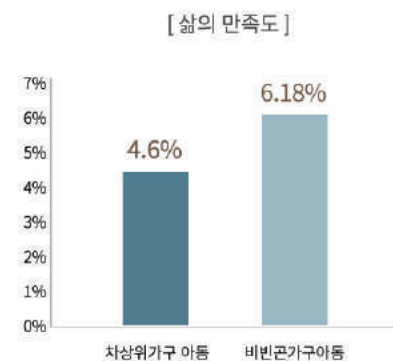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에게 발달적 측면의 다양한 경험과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대표적인 여가활동인 운동 및 나들이의 경우에도 빈곤 가구 아동이 ‘어떤 형태의 여가활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빈곤가구 아동에 비해 4배 이상 나타났다.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삶의 만족도 수준도 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별 삶의 만족도(최소 0점~최대 10점)는 빈곤가구는 4.6으로 중간수준인 5점 이하로 낮게 나타났고, 비빈곤가구는 중간을 조금 상회하는 6.18로 파악되었다.



출처: 아동종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위 조사결과는 빈곤 아동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빈곤 아동에게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는 권리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하고,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할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³⁾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빈곤가구 아동은 비빈곤가구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발달적 성취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아동기 빈곤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인 빈곤과 다르기 때문이다.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빈곤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에 비해서 신체발달·심리정서·인지 발달상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어른이 된 후의 삶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신체발달은 건강상태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아동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87% 정도인데, 이 중 비빈곤가구 아동은 89% 정도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빈곤가구 아동은 평균보다 낮은 7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아동은 전체 응답자중 2% 정도인데, 빈곤 가구의 아동은 5% 정도로 높게 나타나, 빈곤가구 아동이 비빈곤가구 아동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1>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전체	빈곤 가구 아동	비빈곤 가구 아동
좋음	87.15	74.61	88.45
보통	11.13	20.55	10.16
나쁨	1.71	4.84	1.39

출처: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다음으로, 아동의 인지적 발달은 아동의 학업성취(학업성적)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업을 ‘아주 잘함’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24% 정도인데, 이 중 비빈곤아동은 평균보다 높은 25%로 나타났지만, 빈곤아동의 경우 6% 정도로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학령기 아동의 인지발달 측면에서 지표로 볼 수 있는 학업성취에 있어서 빈곤 가구의 아동은 <표-2>와 같이 비빈곤 가구의 아동보다 학업성취를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적 발달이 비빈곤 가구 아동에 비해 낮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2> 학업성취

(단위: %)

구분	전체	전체	빈곤 가구 아동	비빈곤 가구 아동
전과목 평균	아주 잘함	23.48	6.33	25.27

출처: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마지막으로 아동의 심리정서적 발달은 심리정서 관련 특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3>과 같이, 가구의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불안, 위축이 높고,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 가구의 아동이 비빈곤가구의 아동보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심리정서

(단위: 점)

구분	전체	빈곤 가구 아동	비빈곤 가구 아동
자아존중감	28.7	26.7	28.9
우울·불안	3.7	4.8	3.6
주의집중	2.8	3.5	2.7
위축	1.9	2.1	1.9
공격성	2.5	2.8	2.4

※주의집중은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조사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3) 본 절은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되었다.

아동 권리보장의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주요 원칙에 근거한 생명·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아우르고 있으며, 박탈 혹은 빈곤과 관련된 아동의 안녕에 관한 권리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26조에서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제27조에서는 아동이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국내법으로, 모든 아동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등에 따르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히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으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빈곤아동을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정의함으로써 빈곤의 정의를 사회경제적 개념뿐만이 아니라 문화까지 확장하고 있다.



Children's rights issues | 아동권리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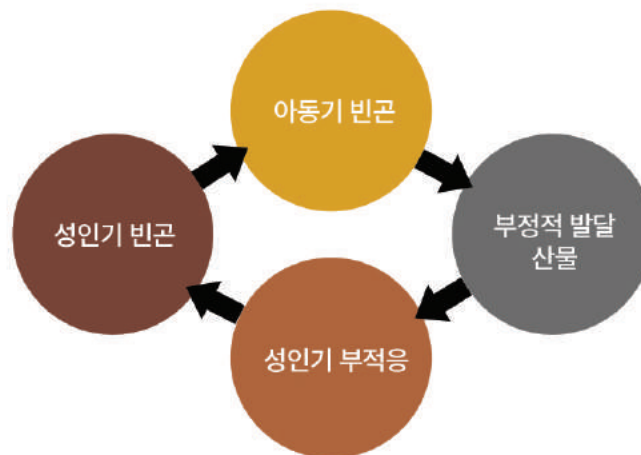
● 빈곤이라는 도미노: 아동기 성장발달의 결손

아동발달의 여러 영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한 영역의 문제는 다른 한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 신체 심리정서 인지 등 각 발달의 영역은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빈곤은 발달균형과 발달영역간 유기적인 연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균형잡힌 발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인간의 성장 발달에 어떤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은 다음 시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결손이 계속 누적되어서 보다 심각한 결손으로 나타날 수 있다(오정수·정익중, 2013). 따라서 빈곤으로 인한 아동기 결손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특정 발달 영역에만 초점을 둔 지엽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 빈곤이라는 수레바퀴: 아동기 빈곤의 악순환

우리가 아동 빈곤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동기에 경험한 빈곤은 아동발달에 부정적 발달 산물⁴⁾과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노력과 성취가 빈곤 대물림의 연결고리를 끊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상대적 빈곤과 기회결핍으로 설명되는 현대 사회의 빈곤은 아동들의 성장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발달성취는 성인기 사회적, 경제적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의 악순환, 대물림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곤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아동기 빈곤이 성인기 빈곤으로 이행하는 경로]



● 빈곤한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는 사회

모든 아동은 자신의 충분한 발달을 위한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가 있다. 이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나 아동의 여가, 놀이 및 레크레이션 활동과 문화적 생활에 대한 보장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받아서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계층의 아동이 여가와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놀이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참여에 있어 중요한 놀이와 여가기회가 공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교육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공교육으로 인한 기회 균등은 사교육에 의해서 좌초되고 있는데, 절대다수의 학생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그 비용의 지출이 차이가 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며, 이것은 높은 학업성취와 진학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⁵⁾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을 하던 사다리 효과가 사라지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의 의미가 퇴색되어버렸다.

4) 부정적 발달 산물은 낮은 학업성취,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과 불안감, 주의집중곤란과 산만함, 위축, 공격성, 취약한 신체 건강 등을 들 수 있다.

5) 1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진학 학생의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원인데 반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의 월평균 소득은 340만원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학 진학에 큰 차이가 있었다(전병유, 2016).

Recommendations |

아동들은 누구나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동들은 권리의 주체이며, 마땅히 누려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아동들이 발달과 보호, 참여의 모든 영역에서 권리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기 빈곤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아동기 빈곤 이해를 위해 상대적 빈곤, 아동결핍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주목하여야 한다.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만으로는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으로 인한 궁핍감과 박탈감을 헤아리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차원적 맥락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빈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즉, 실제 아동빈곤이 야기하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개입전략이 선택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통합모형이 필요하다(정은희, 최새은, 이상균, 하태정 2013). 빈곤가구의 총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빈곤 아동을 위한 조기예방 및 개입 서비스, 교육성취도 향상과 학교적응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정은희 외, 2013).

빈곤아동지원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회적 차별, 미래역량과 연계되는 교육 문화향유 기회 등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정기실태조사를 기초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빈곤아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 그러나 빈곤아동지원법(2012년) 제정과 아동정책기본계획(2015년) 발표 이후 아직까지 빈곤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실효성있고 통합적인 빈곤아동 지원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대간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빈곤 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통합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기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대간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해야 한다. 아동수당지급, 아동관련 지출 조세혜택, 공적이전 프로그램 등의 해외 선진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빈곤가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아동기 성장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인 영향을 끼치며 발달한다. 따라서 각각의 발달 영역에서의 결손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연관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또한 역설적으로는 각각의 발달 영역에 대한 결손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다른 영역의 발달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빈곤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스포츠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단순히 신체적인 발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양, 보건, 심리정서적 교육 등을 구조화하여 개입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Gabriel, DeBate, High & Racine, 2011, Bohnert & Ward, 2013). 대부분 빈곤 가구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개입은 현물지급 등을 통한 자원 제공과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에 치우쳐 있는 것이 실정이다. 아동의 다차원적 결핍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과 지원체계마련이 필요하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적응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탐색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곤이 아동기 발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결손의 영향력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모든 아동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으며 그 양상도 각각 다르다. 이것을 적응유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적응유연성은 '심각한 역경 속에서도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며, 그 사회와 문화적 맥락이 고려된 심리적 안녕과 문제행동의 부재, 대인관계의 유능성 등이 형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된다(최혜정, 2013; Masten & Obradovic, 2008). 따라서 빈곤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발달과업을 완수하여 성인기로 성장하는 아동들의 잠재력에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구조적인 정책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함은 마땅하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아동들의 적응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개입 노력 또한 필요하다.

Casestory |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은?

희망나눔학교 방학교실은 외환위기 이후 결식 및 방임 위기에 처하기 쉬운 빈곤가정 아동들에게 방학 중 ‘급식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작된 굿네이버스의 대표적인 빈곤가정아동지원사업이다.

빈곤아동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는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하여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보건소 및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검진 및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체활동 및 체육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빈곤아동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매년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치료매체를 도입하여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사회성 발달 및 또래관계 증진,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아동의 ‘즐거운 방학’ 지원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는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과학, 창의교육 및 환경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체험, 야외활동 등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강식(전시, 발표회 등)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방학을 지원한다.

3. 아동의 ‘행복한 가족’ 지원

희망나눔학교 참여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참여 문화활동,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고, 가족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가족이 함께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4. 아동의 ‘꿈꾸는 미래’ 지원

굿네이버스 희망나눔학교는 지역사회 자원 및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아동이 다양한 특기 활동과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서/학습지도 프로그램, 우리가 꿈꾸는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또래 친구들과 협업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팀 프로젝트 공모전’을 진행하여 빈곤아동의 현재 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 발달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
-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배화옥·조애저·김효진·홍미(2007). 한국의 빈곤아동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주(2015).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한국사회정책*, 22(3), 105~137.
- 노대명·김문길·오미애·전지현·박형준·신재동·이주미·김근혜·오혜인·박나영·이봉주·김태성·구인회·박정민·이상록·정원오·이서윤·김화선·이혜림(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정수·정익중(2013).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이재연·황옥경·안동현·김영지·김효진·이호균·강현아·장영인·정선영(2015). 아동복지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레토릭. 파주: 교육과학사.
- 임완섭·노대명(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병유·신진욱(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 정은희·최새은·이상균·하태정(2013).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혜정(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경험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25(-), 25-55.
- Bohnert, A. M., & Ward, A. K. (2013). Making a difference evaluating the Girls in the Game (GIG) after-school progra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3(1), 104-130.
- Gabriel, K. K. P., DeBate, R. D., High, R. R., & Racine, E. F. (2011). Girls on the Run: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of a developmentally focused youth sport program.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8(2), 285-294.
- Masten, A. S., & Obradovic, J. (2008). Disaster preparation and recovery: Lessons from research on resilience in human development. *Ecology and Society*, 13(1), 9.
- Vleminckx, K., & Smeeding, T. M. (2003).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What do we know?*, Briston: Policy Press.